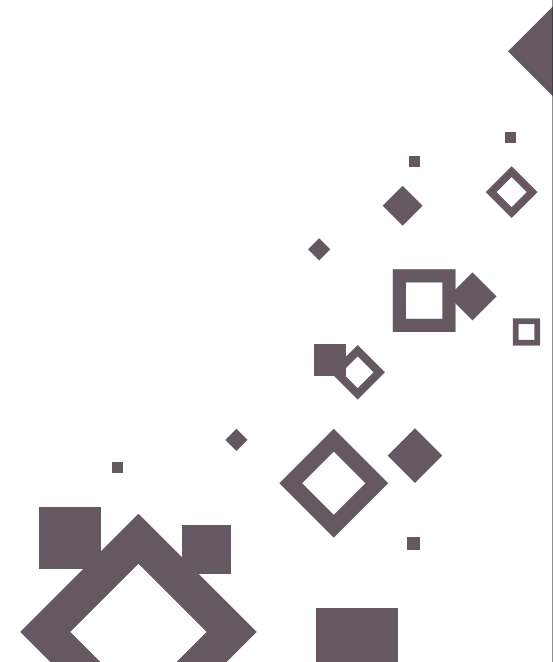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돈암서원



본 사업은 문화재청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전담해설사' 교육 교재
파일로 연결됩니다.



목차

유네스코 서계유산과 '한국의 서원'

01. 유네스코 세계유산	05
02. 서원의 이해	06
03. 서원의 주요기능	08
04. 동아시아 사립교육기관과 비교	14
05. 조선의 다른 교육기관과 비교	16
06.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	17

논산 돈암서원

01. 논산 돈암서원 개요	23
02. 강학	28
03. 제향	34
04. 교류와 유식	39

논산 돈암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 40

01. 유네스코와 유산

세계유산

세계유산협약에 근거하여 세계의 모든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관리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고, 현재와 미래 세대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 자연적으로 중요한 가치

※ 근거: 세계유산협약 및 운영지침

탁월한 보편적 가치 핵심 키워드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준 10개 중 **1개 이상의 기준**을 충족했는지
- **완전성과 진정성** 개념을 충족했는지
- 가치를 보호 및 관리할 **보호관리계획**을 갖추었는지

※ 등재 기준, 완전성과 진정성, 보호관리계획을 모두 설명함으로써 세계유산임을 알릴 수 있음



세계유산협약 전문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한국의 서원’ 목록

서원명	건립 / 사액 연도	주향 인물	비고
영주 소수서원	1543년/ 1550년	회헌(晦軒) 안향(安珦) (1243~1306)	사적 (1963)
함양 남계서원	1552년/ 1566년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 (1450~1504)	사적 (2009)
경주 옥산서원	1572년/ 1574년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	사적 (1967)
안동 도산서원	1574년/ 1575년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	사적 (1969)
장성 필암서원	1590년/ 1662년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	사적 (1975)
달성 도동서원	1605년/ 1607년	한훤당(寒暄堂) 김공필(金宏弼) (1454~1504)	사적 (2007)
안동 병산서원	1613년/ 1863년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	사적 (1978)
정읍 무성서원	1615년/ 1696년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857~?)	사적 (1968)
논산 돈암서원	1634년/ 1660년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	사적 (1993)

02. 서원의 이해

서원이란?

- 조선시대 유학자들에 의해 설립된 사립 학교
- 조선 중기 이후 각지에 세워지며 성리학 연구와 교육, 선현先賢 제사, 지역 사림士林의 교류와 유식을 담당하는 공간
- 제도적 영향이 덜 미치는 향촌까지 통치이념 전파, 지역 문화 선도

서원의 기원

- 명칭은 중국 당唐 현종玄宗, 재위 712~756년 시기 서적의 출판과 활용, 관리를 담당한 '여정서원'이 최초
- 송宋 시기 국립학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자 문인들에 의해 서원 건립이 유행하며 교육기능, 제사기능, 도서 보관 기능 등의 성격 형성
- 남송南宋 시기 주희朱熹, 1130~1200가 세운 '백록동서원'은 학규, 관리기구 등의 제도를 갖추고 강학 활동이 활발하여 동아시아 서원의 모범이 됨
- 백록동서원은 조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소수서원)'의 모티브

한국에서 서원 성립

- 1392년 조선 건국 이래, 태조太祖, 재위 1392~1398는 국립교육기관 진흥이라는 방향 제시, 국학(성균관)과 향교를 통한 인재 양성 권장

- 15세기 후반 향교에서 교관의 질적 수준 저하, 사족들의 출입 기피 등 문제 발생
- 고려 말 성리학이 도입된 이후 형성된 사람들은 향촌 중심의 교화 모색, 중국의 서원제도 주목
-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의 백운동서원(훗날 소수서원) 건립 이후 이황李滉, 1501~1570에 의해 본격적으로 서원 보급, 확산

서원의 구성원: 사람

- 향촌 지식인집단
- 성리학을 토대로 하는 모범-완성된 인간이 되는 것이 목표
- 성리학 교육과 모범적인 인간인 선현을 기리는 제향 중시
- 관련 자료: 『원장안院長案』, 『원임안院任案』, 『입원록入院錄』 등

구분	역할
원장院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원 업무 총괄 ◉ 서원을 대표하는 실질적 책임자, 관리 주체 ◉ 임기는 1~2년, 대체로 연임 허용
원임院任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을 도와 서원 운영 담당 ◉ 도감都監, 장의掌議, 유사有司로도 불림 ◉ 서원 내 규찰, 재정 문제 담당 ◉ 수업 준비 및 원생 교육도 담당
원생院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된 천거자의 추천을 통해 입학 ◉ 성리학 경전 중심의 입학자격 시험을 통해 최종 선발 ◉ 선발 과정은 서원별 자율적 운영

서원의 규약(規約)

- 원규院規 : 강학 · 제향 · 서원의 관리와 서원 운영 등 전반에 걸친 규약
- 학규學規, 강규講規 : 서원 원규를 세분화한 것
- 절목節目 : 실제 강학이 개설되기 직전에 작성한 강학의 시행 세칙
- 완의完議, 입의立議 : 강학과 관련된 주요 정책 결정

서원의 재정

- 대체로 지역 사림의 자발적 출연을 통한 토지, 노비, 기부로 경제적 기반 마련
- 사액서원에는 서적, 토지, 노비 등이 제공되나 운영과 관련한 통제는 없음
- 관련 자료: 『전답안田畝案』, 『노비안奴婢案』, 『전장기傳掌記』, 『도록都錄』 등

03. 서원의 주요 기능: 강학, 제향, 교류와 유식

강학

- 성리학 교육을 통한 후속 세대의 양성
- 개별학습인 독서, 공동학습인 강회의 병행
- 교재는 주로 주희와 제자들이 정리한 성리학 관련 서적

- 교육 과정에서 과거시험은 철저히 배제
- 강학 활동은 ‘자발적 강학으로서 회강會講’과 ‘공식적·의례적 강학으로서 강회講會’로 구분

강학의 종류

구분	내용
거접居接	집단적인 학습 활동 또는 연중행사로 하던 글짓기 경연
문화文會	주로 서원에서 강학 후에 시문을 창작하고 서로 비평하는 모임을 갖는 일. 시회詩會와 같이 쓴다.
거재居齋	유생들이 숙식을 하면서 공부하는 일
순제旬題	지방의 향교鄕校 유생儒生에게 열흘마다 글 제목을 내어 주고 제 집에서 제술製述하여 바치게 하던 일
통독通讀	서원 유생들에게 제술製述, 강서講書를 시험하는 일
백일장白日場	각 지방에서 유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글짓기 시험을 실시하던 일. 낮 중에 시험과 평가를 마치는 것을 말하기도 함

향사 후의 강회 講會	향사 ^{享祀} 를 지낸 후, 「백록동규 ^{白鹿洞規} 」나 「여씨향약 ^{呂氏鄉約} 」 같은 교화서를 낭독하고 강생 ^{講生} 이 강장 ^{講長} 앞에서 진강 ^{進講} 을 하는 순서로 진행. 진강을 하는 방식은 지[柱: 경전의 한 장의 내용을 적어 놓은 쪽 종이]를 뽑아 거기에 적힌 구절을 강생이 외우고 해석하면, 강장은 그 의미를 묻고 강생이 이에 대해 답하는 형식이다.
----------------	---

강학 의례

구분		내용
홀기를 갖춘 공식적 의례	정음례 庭揖禮	서원에 속한 사람들이 강당 앞뜰에 동서로 나누어 서서 서로 절하는 절차. 읍례 ^{揖禮} 는 두 손을 마주잡고 머리까지 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굽혔다 펴는 정중한 인사법이다.
	상읍례	큰 읍 ^揖 으로 서로간 인사를 나누는 것
	강습례	일정기간 배운 것을 테스트 하는 의례. 무성서원의 경우는 진설 ^{陳設} :신위가 없이 배설한 허위의 진설을 말함-첨배 ^{瞻拜} :허위에 배독하는 것을 말함-상읍 ^{相揖} :서로간 읍례를 거행함-승당 ^{升堂} :당에 오름-독규 ^{讀規} :규약을 읽음-배독 ^{拜讀} :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읽음-진강 ^{進講} -예필 ^{禮畢} 로 이루어져 있다.

구분		내용
관습적 의례	경독 敬讀	강학에 앞서 백록동규 ^{白鹿洞規} , 사물잡 ^{四勿箴} , 심잠 ^{心箴} , 경재잠 ^{敬齋箴} , 숙흥야매잠 ^{夙興夜寐箴} 을 낭독하는 것이다.
	개접례, 입접례	강학의 모임을 시작하는 의례
	파접례, 후접례	강학의 모임을 마치는 의례
	귀가례	집에 돌아가기 전에 거행하는 의례
	수창시	수창시는 ‘회강’에 참여한 소회나 깨달은 것을 시로 지어 공유

제향

- 해당 지역 관련 선현에 대한 제향
- 한국 서원에서 가장 중시되는 기능
- 선현의 학덕과 행의 추앙, 정신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 결속을 다지는 기회

제향의 종류

구분	명칭	시기
정기	춘추 향사	매년 봄·가을
	삭망례	매월 초하루, 보름
	정알례	매년 정월 초 5일이나 7일

교류와 유식

- 교류 交流: 서원의 구성원, 서원에 방문한 명사, 서원과 서원 사이의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
- 유식 遊息
 - 쉬고 노닐면서 함양하는 것. 『예기』, 학기에 군자는 학문할 때 장수 藏修: 늘 학문에 대한 생각을 품고 익히는 것하면서도 유식한다고 함, 유식은 자연경관 속 그것과 어우러지며 이루어짐
 - 천인합일이라는 인격수양 방식의 일환. 문학활동을 통해 인성의 품격 品格을 높여가는 현상이기도 함
- 해당 지역의 지적 활동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사회적 활동과 공론 결집
- 지역 여론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소통하는 데 선도적 역할
- 지식인들의 회합 장소, 토론이나 학습, 교류의 개방된 공간 기능
- 남전향약, 예안향약, 해주향약 등 향약을 통한 향촌 교화의 중심지 역할
- 관련 자료: 『심원록』 등

구분	명칭	시기
비정기	이안례	서원에 일이 있어 임시로 위패를 옮길 경우
	환안례	위패를 다시 제자리에 모실 경우
	위안례	불시에 재난을 입었을 경우
	예성례	위패를 새로 봉안하거나 제외시킬 경우
	사액례	사액을 받을 경우
	치제	국가에서 제관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는 경우



입재



성상례



집사분청



분향례



사우입장



제물근봉



초헌례



중헌례



철반두



파제



향약낭독



음복례

서원에서는 춘추 향사를 가장 중요한 의례행위로 규정, 준비부터 거행까지 2일 소요

04. 동아시아 사립 교육기관과 비교

중국에서 서원이 생긴 이래 한국, 일본에서 중국의 서원제도를 수용하여 독자적인 지역문화 형성을 이루었다

동아시아 사립 유학교육기관 비교표

	중국의 서원	한국의 서원	일본의 시주쿠
도입 시기	7세기	16세기	17세기
설립 목적	유학 지식인 양성 → 관료 양성 관학 보조	성리학 지식인 양성 지역 기반 선현 제향	지식인 양성
교육 대상	제한 없음	지역 유생	무사, 가신 그룹
교육 학문	유학	성리학	유학, 의학, 산학, 서양학문 등 다양
제향	인물	주로 공자 등 성현	지역단위 선현
	의례	일부 서원만 유지	현재까지 존속
사회적 기능	국가정책 따라 변동	지역 공론 중심지 지역 교화 중심지	크게 중시하지 않음
건축	입지	접근성 고려 도시공간 등	제향인물 연고지 자연 경관 고려
	기능	강학-제향-장서	접근성 고려 도시공간

건축	구성 요소	사우 강당, 재사 도서관 반지 과거합격 비석군	사우 강당, 재사 도서관 누각, 정자	강당 재사 도서관
	배치 유형	서원별 개별성 강함	공통의 배치 유형 존재	단일건물 중심
	경관 구성	인위적 폐쇄적	자연친화적 개방과 관입 구현	인위적 폐쇄적
	지역 성	입식 생활 구조 의자, 화로	좌식 생활 구조 온돌, 마루의 조화	좌식 생활 구조 다다미, 화로

06.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

등재 기준

- 세계유산 등재 기준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 충족
-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적 전통의 탁월한 증거로 교육과 사회적 관습의 많은 부분이 오늘날까지 지속
- 중국에서 들어온 성리학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형, 토착화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독보적 증거

완전성

- 서원과 부속건물, 정문, 하마비, 기념비를 비롯해 능선과 계곡 등 인접환경으로 이루어진 건물 및 건축요소 갖추
-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속성 갖추

진정성

-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은 기본적으로 원래 모습 유지
- 활용과 기능, 전통도 대부분 지속되어 온 내용 그대로 유지
*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은 크게 축소
- 서원의 위치와 주변환경, 무형유산, 서원의 영적 측면도 전반적으로 유지
* 두 곳의 서원은 최초 위치에서 옮겨짐

05. 조선의 다른 교육기관과 비교

	서원	향교	성균관
설립주체	사림	지방정부	중앙정부
분포	지역별 다양	군현별 1개	수도에 1개
설립목적	인성교육 선현제향 사림 활동 기반	관료 양성 교육 공자 제향	관료 양성 교육 공자 제향
사회적역할	지역 공론 형성 지역 문화 교류		유생 공론 형성
입지	제향 대상과 관련 교육 목적에 부합	지방 행정 중심지	수도
구성요소	사우(선현), 전사청 강당, 재사, 도서관 (경각), 누각, 정자	문묘, 전사청 강당, 재사	문묘, 전사청 강당, 재사, 도서관
건축유형	제향-강학-교류, 유식	강학-제향	강학-제향

- 서원은 특정 유학자를 제향하고, 제향자의 학문적 연원이 가장 중시됨
- 서원의 입지는 제향 인물의 강학처, 수양처, 거주지, 묘소 등과 관련

수려한 주변 경관

- 주희는 백록동서원이 아름다운 산수로 둘러싸여 시끄러운 시내가 아니기에 모여서 강학하고 글쓰기 좋은 곳이라고 함
- 이황은 국학이나 향교가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 구애됨이 많다고 하며 서원은 한적한 들, 고요한 물가에 세워져 학문을 하고 인재를 얻기 좋다고 함
- 많은 서원들이 강, 산, 계곡, 들판 등 시각적으로 조망이 탁월한 곳에 입지
- 특히 정자, 누각은 선비들의 교류와 유식 공간으로 자연경관이 건축의 한 요소로 포함되도록 구성

‘한국의 서원’ 건축 특성

보편성

- ‘한국의 서원’은 16세기 중반부터 약 1세기 동안 집중적으로 건립되며 제향공간, 강학공간, 교류와 유식공간으로 점차 정형화
- 16세기부터 한국 건축에서 보편화된 마루와 온돌의 유기적 결합으로 좌식형 생활습관을 토대로 교육기관으로서 정착

보호 및 관리계획

- 대한민국의 문화재보호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등을 통해 법적 보호
-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서원 및 주변 지역 보호 및 관리
- 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지정되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축, 증축, 개축을 엄격하게 규제

연속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

연속유산이란

- ‘연속유산’이란 함께 모였을 때 세계유산으로서의 특정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산
- 각 유산은 전체 유산의 가치에 기여하는 부분이 명확해야 하고, 다른 구성요소에 의해 대체 불가여야 함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은 9개 서원으로 구성된 국내 연속유산

‘한국의 서원’ 입지 특성

제향하는 선현의 연고지

- 퇴계 이황은 서원에 대한 지원과 사액을 요청하며 선현先賢들이 살던 곳에 서원 건립 주장

강학공간

- 건물: 강당, 재사, 장서각, 장판각 등
- 강당은 대개 대청마루와 좌우로 독립된 온돌방 설치하는 형식
 - 강당: 마루는 교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온돌방은 원장과 원임이 기거하는 공간으로 활용
 - 재사: 주로 강당 좌우의 동재, 서재로 구성, 학생들의 기거 공간
 - 장서각, 장판각: 목판이나 도서 보관

교류와 유식공간

- 건물: 누각, 정자 등
- 누각은 누정, 누마루로도 불리며 서원 전면부에 설치, 한국 서원의 가장 독특한 전각으로 교류와 유식이라는 서원의 사회적 활동이 표현된 건축
- 연못, 석각 등을 통해 성리학적 이념을 투영하거나, 성리학 적 가치가 반영된 수목을 식재하기도 함

기타

- 고직사, 교육시설, 하마비, 홍살문, 기념비 등
- 하마비, 홍살문 등은 서원의 진입을 알려주는 기능
 - 고직사: 서원의 관리와 행정지원을 위한 사람들 거주
 - 교육시설: 대체로 서원 건축물 따라 목재 사용, 전통 건축기법 토 대로 건립
 - 하마비: 선현에 대한 예를 표하고자 말에서 내릴 것을 가리키는 비석
 - 홍살문: 기둥 두 개 위에 화살 모양의 나무를 나란히 세우고 중간에 태극문양이 그려짐

- 대부분의 서원은 상하의 축선을 기준으로 각 공간을 단계적으로 설정

독자성

- ‘한국의 서원’은 서원의 도입 과정에서 다양한 건축 배치 기법 적용
- 공유된 건축 전형을 바탕으로 환경, 성리학적 이상에 적합한 건축적 독창성 확인됨
- 각 건축 요소에 성리학 가치관 투영, 공간별 창의적 건축물, 건축 구조 형성

공간 구분

제향공간

- 건물: 사우, 전사청, 제기고 등
- 담장으로 둘러싸여 다른 공간과 엄격하게 구분
- 사우는 가장 높은 위계로 여겨지며 독립된 영역으로 구성, 별도 출입문 설치
 - 사우: 선현을 제향하는 공간
 - 전사청: 제물, 제관이 대기하는 장소
 - 제기고: 제향에 필요한 도구 보관 장소

‘한국의 서원’ 서원별 세계유산가치

서원명	세계유산가치
영주 소수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로 건립된 서원 ◦ 강학, 제향 관련 규정하여 서원제도 근간 마련
함양 남계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사람들만에 의해 설립된 사례 ◦ 강당과 사당, 문루가 일렬로 배치되는 전형적인 서원 건축의 배치방식
경주 옥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 장서의 중심기구로서 서원 역할 정립 ◦ 누마루를 도입하여 교류와 유식 기능 효과적 수행
안동 도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문과 학파 중심기구로 발전하는 전형 수립 ◦ 서원 운동의 중심지로 성장
장성 필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원의 경제적 운영방식 정형화 ◦ 평지 건축물 배치의 전형 완성
달성 도동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규, 강규 등 서원 교육 방식의 구체적 양상 입증 ◦ 경사지 활용한 서원 건축 배치의 전형 완성
안동 병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론장으로서의 서원 기능 입증 ◦ 입지경관과 누마루 조화의 탁월성
정읍 무성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리학 이념의 사회적 확대 모색 ◦ 향촌 교화 위해 교육과 사회적 근거지에 설립
논산 돈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리학의 실천적 이론인 예학을 한국적으로 완성한 거점 ◦ 예에 기반을 둔 건축제도 완성

노산 돈암개원

01. 논산 동암서원 개요

1) 동암서원의 역사

(1) 건립

건립 배경

- 김계휘(金繼輝, 1526~1582)가 낙향하여 연산에 정회당(靜會堂) 건립 후 후학 교육 및 향촌교화 전통
- 1602년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이 낙향하여 연산에 양성당(養性堂) 건립 후 약 30년에 걸쳐 후학 교육 및 향촌교화 전통 계승

건립 과정

- 1631년 김장생의 사망 후 그의 학덕을 기리는 문인들 중심으로 서원 건립 분위기 조성
- 1632년 김집金集, 1574~1656을 필두로 전현직 관료와 유사들이 포함된 사람들이 서원건립 발의
- 1634년 사우의 상량上樑 거행 후 김장생의 위패를 봉안하며 사우와 강당을 중심으로 돈암서원 창건(처음에는 사계서원이라 불림)

(3) 운영

- 돈암서원의 원생, 운영과 조직은 정회당의 것을 계승
- 아래의 내용은 정회당유안靜會堂儒案의 당중입의堂中立議를 제시하고, 1870년 정회당문회계안靜會堂文會契案의 당중입의를 추가
- 자세한 사항은 『돈암서원 고문서 기록화 사업 최종보고서』, 『서원향사 노강서원·돈암서원』 참고

원생(院生)

- 유생儒生の 입적入籍은 초시初試에 합격한 사람 및 글의 이치에 널리 능통한 것을 많은 사람이 함께 알고 있는 자 외에 일체 들이지 말 것
- (1870년) 귀하고 천함, 나이 많고 적음을 논하지 말고 학업에 뜻이 있고 이름과 행동이 욕되지 않은 자는 모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다
- (1870년) 다른 지역 사람 중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도 또한 앞의 규정과 같이하며 3명을 넘기지 말 것
- 무릇 처음 들어오는 자는 각 1인이 책임지고 천거하고, 그 사람됨이 나쁜 자를 천거하면 벌이 있다
- 규정, 법을 어기거나 잊고 자기 뜻에 따라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는 가벼운 것은 손도損徒하고 무거우면 삭출削黜한다
- 유학儒學을 행하는 데 부족하거나 신체와 명성을 더럽힌 자 또한 내쫓는다
- 처음 들어왔을 때는 예例에 따라 지례贊禮를 행할 것
- 서책은 임의로 밖으로 낼 수 없고, 잡기는 일체 금단한다

돈암서원 재정 마련

- 1632년 김장생의 사우祠宇 건립을 위하여 동춘당 송준길이 여러 고을의 향교, 서원의 유림에게 통문通文 발송
- 공주목公州牧, 청주목淸州牧, 홍주목洪州牧 산하 20여 지방의 유림들의 재정 지원으로 건립 초기 경제적 기반 마련
- 관련 유물: 『돈원구적遡院舊蹟』

(2) 사액

돈암서원 사액

- 서원을 지은 지 30년 동안 국가에 번고가 많아서 사액요청을 못함
- 1656년 김집의 사망 후 그의 배향을 추진하며 상소를 통해 사액 요청
- 1659년 김장생과 김집을 제향하는 서원의 액호를 ‘돈암遡巖’으로 하라는 왕명 내려짐
- 효종孝宗, 재위 1649~1659이 사망하면서 절차 보류
- 1660년 다시 상소를 올려 사액을 요청하자, ‘돈암’이라는 액호가 내려지고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

돈암의 의미

- 돈암遡巖은 주자가 말년에 쓰던 돈옹遡翁이라는 호에서 취함
-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군자가 난세에 몸을 숨기는 형상으로 사계 김장생이 관직을 내려놓고 연산에 내려와 숲말(임리) 커다란 바위 아래 양성당을 짓고 최초의 산림으로 살고 자한 일생을 상징

- (1870년) 책은 낼 수 없고 색^色은 들일 수 없으며 잡기는 일체 금단한다, 어기는 자는 중함에 따라 벌을 논한다

원임(院任)

- 유사^{有司} 2인은 1년마다 서로 번갈아 하며 문서를 넘겨받아 주관한다
- (1870년) 계중^{契中}에서 지식과 명망이 있는 자를 추천하여 1인을 장의^{掌議}로 삼아 모든 중요한 논의는 장의가 주관하고, 또 정밀하고 세밀하며 신중한 자를 1인을 택하여 유사로 정하여 서책, 문안^{文案}을 모두 그가 주관토록 하라, 다시 성실하고 부지런한 자 1인을 사화^{司貨}로 삼아 계^契의 재산을 주관토록 한다
- 전답소출유사^{田畝所出有司}는 수입을 계산하여 절의 승려 중 부지런하고 온후한 자를 택하여 보수^{保守}로 삼아 수입을 헤아려 본금을 보존하고 이자를 취하여 쓰도록 하라
- 유사는 1년의 씬씀이를 계산하여 서책을 사서 들여라
- 서기승^{書記僧} 1인, 고직승^{庫直僧} 1인은 1년마다 서로 교체하라
* 자세한 사항은 『돈암서원 고문서 기록화 사업 최종보고서』, 『돈암서원』, 2022 참고

2) 돈암서원의 공간 구성

돈암서원의 입지

- 충청남도 논산시에 위치
- 서원 안뜰에서 왼쪽에는 계룡산, 오른쪽은 대둔산, 정면에는 천호산이 있고 그 앞 둔덕 사이에 황산벌 위치
- 서원은 서쪽으로 넓은 평지의 시작점에 위치
- 돈암서원이 위치한 연산은 호서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 세계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산 및 인접 구역을 설정하여 관리

건물배치도

- 돈암서원은 홍수로 인해 1880년 현재 위치로 이건
- 응도당은 돈암서원에서 가장 중심적 건물이지만 서원 우측에 서향하여 있음. 현재의 사당과 직각을 이룬 서향 구조는 이전하는 과정에서 변형된 배치
- 돈암서원은 이전 과정에서 양성당을 강학공간으로 배치하여 전학후묘 서원 배치를 따름
- 1971년 응도당이 현 위치로 이건하는데 이미 강당의 기능을 하는 양성당이 있었으므로 양성당의 서남쪽으로 이건이 결정되며 서원의 전체적인 배치구조가 변형됨
- 응도당은 현존하는 서원건물로 하옥제도^{廈屋制度}를 본받아 지은 건물
- 2006년 외삼문 정면에 2층 누각인 산양루 건립



02. 강학

건물

응도당(凝道堂)

- 목적: 서원 강학 활동의 핵심 건축물, 호서 사람의 활동 거점
- 한국 서원 중 가장 큰 규모의 강당
- 응도당은 정침이론을 한국의 건축언어로 재해석하여 완성
- 응도凝道: 덕을 닦고 학문을 모아 성취한다는 의미
- 옛터에서는 응도당이 강당 역할이었지만 이건 과정에서 양 성당이 강당의 역할을 대신함
- 1971년 원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현 위치로 이건하여 보존

- 중당中堂과 동서상東西廂, 중당 뒤에 실室과 좌우 방房, 동서 협실夾室을 둠
- 정면 5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 건물

응도당의 건축적 가치

- 김장생이 『가례집람家例輯覽』에서 이론적으로 정립한 묘침 제廟寢制가 실제로 적용된 대표된 사례
- 전옥하옥제殿屋廈屋制: 신분에 따라 건축형식을 구분하는 것으로 천자, 제후의 건축인 전옥과 경, 대부, 사의 건축인 하옥으로 대별
- 동방서실제東房西室制: 경, 대부, 사의 집에 적용, 응도당은 실室을 가운데 두고 좌우에 방을 배치하여 동방서실제 적용
- 당우제堂宇制: 지붕 구성의 차이 규정, 응도당은 양 측면에 눈썹지붕인 영榮을 설치

응도당 관련 유물

응도당 현판

- 작자 및 시기 미상

연산도암서원상량문(連山遯巖書院上梁文)

- 김상헌金尙憲, 1570~1652 작성
- 돈암서원 창건기 상량문
- 김장생의 성품, 학문 등을 칭송하고, 서원을 세운 내력과 많은 선비가 이곳에서 강학과 장수의 전통을 이어가기를 기원

양성당(養性堂)

- 목적: 배향자가 생전에 강학활동을 했던 곳, 배향자 사후 강학 목적으로 활용
- 김장생은 1602년 양성당을 세워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힘을 기울임
- 양성^{養性}: 김장생이 스스로 늙더라고 게으르지 않도록 자신을 경계하고자, '오랫동안 힘들여 본성을 기른다'는 의미를 부여한 당호
-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

양성당 관련 유물

* 자세한 사항은 『돈암서원 고문서 기록화 사업 최종보고서』 참고

양성당 현판

- 이건 과정에서 현판만 전해지던 것을 현재 위치로 서원을 이전하며 게판

양성당기(養性堂記)

- 정업^{鄭曄}, 1563~1625이 김장생의 부탁으로 1603년에 지은 양성당 기문
- 양성당의 내력, 기문을 짓게 된 계기, 김장생의 학문이 이어지기를 기원하는 내용

양성당제영(養性堂題詠)

- 김장생이 17세기 전반 당시 저명한 인물 19명에게 차운^{次韻}시를 받아 게판
- 김장생과 양성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폭넓은 인적 교류를 볼 수 있음

양성당십영(養性堂十詠)

- 김장생이 양성당 주변의 빼어난 산수 경관을 읊은 것
- 이단하^{李端夏}, 1625~1689, 황혁^{黃赫}, 1551~1612, 장유^{張維}, 1587~1638 등 저명인사들의 시문 기록

아한정제영(雅閑亭題詠)

- 양성당의 전신인 아한정은 최청강^{崔淸江}의 별서^{別墅}
- 아한정에 대한 김국광^{金國光}, 1415~1480, 신숙주^{申叔舟}, 1417~1475, 송익필^{宋翼弼}, 1534~1599, 김은휘^{金殷輝}, 1541~1611 등이 지은 시문이 판각되어 있음
- 글의 말미에 최청강의 후손 최창환^{崔昌煥}이 아한정 건립과 여러 시가 전해오는 유서를 설명

연산현돈암서원비기(蓮山縣遯巖書院碑記)

- 돈암서원의 배향 인물, 건립 및 사액 과정 기록
- 1669년 송시열 작성, 송준길의 글씨

거경재(居敬齋) · 정의재(精義齋)

- 목적: 학생들의 기숙과 개인 학습
- 정면 3칸, 측면 1.5칸의 맞배지붕 건물
- 원래 응도당 좌우 중앙간에 현판을 걸고 위치
- 현재 건물은 1997년 신축

장판각(藏板閣)

- 서원에서 생산된 목판 등 보관
- 돈암서원 이건 이후 1926년 경내 최초로 건립

- 김장생의 전서, 신독재 김집의 전서, 유고 등 모든 저서를 합쳐 보관하기 위해 설립
-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

정회당(靜會堂)

- 김장생의 부친 김계휘가 1557년 낙향하여 고운사의 경내를 빌려 향촌 교화를 위해 강학활동을 하던 곳
- 정회靜會: 고요히 모인다는 의미
- 『돈암서원지』에 의하면 고운사 경내를 빌려 운영되던 정회당은 병화로 소실, 1882년 대둔산 대승사 재건, 1950년 현재 돈암서원 경내로 이건
- 정면 4칸, 측면 1.5칸의 팔작지붕 건물

정회당 관련 유물

정회당 현판

- 당시 명필로 유명했던 김예산金禮山이 8세 때 작성

입덕문(入德門)

- 서원의 외삼문
- 1880년 서원 이건 당시 옛터에서 옮겨옴. 이건 당시 양성당 앞에 배치

- 응도당 이건으로 서원 영역의 밖에 배치하게 되자, 1974년 입덕문을 응도당 앞으로 이건하여, 응도당을 포함하면서 서원 영역 확장

교육

-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은 서원의 주요 기능

돈암서원 강규(講規)

- 우리 동방의 여러 현인들은 하나의 학문을 주장하지 않음이 없었는데, 사계沙溪 선생에 이르러서는 오로지 『가례』와 『소학小學』을 주로 하셨다
- 또 사서四書에서는 더욱 『중용中庸』의 학문에 힘을 쏟으셨다
- 무릇 우리 당黨의 선비는 비록 평소에 강독하지만 이것을 준수하고자 하지않으면 안 된다
- 『가례』, 『소학』, 『대학』, 『중용』 이 네 책을 영원히 강회講會하는 법식으로 삼는다
- 모든 원생은 복색을 갖추고 유안儒案 앞에 동서로 나누어 나 이 순서대로 서서 상읍례相揖禮를 행한다
- 백록동규 및 차례가 되어 강하는 책을 책상 위에 두고 제생諸生은 동서로 나누어 나이순으로 서로 읊揖하고 다시 한 줄로 차례로 선다
- 강장위講長位를 향하여 모두 두 번 절한다
- 유사가 먼저 백록동규를 소리내어 읽고, 연장자 순으로 단배례單拜禮를 행한다

- 옷깃을 가지런히 하고 무릎 꿇고 앉아 강서講書를 읽는다, 읽기를 마치고 강하는 사람이 의심나는 대로 질문한다
- 강講을 마치면 비록 연좌燕座에서 담론하더라도 항상 구용九容을 몸에 지녀야 한다

03. 제향

인물

김장생(金長生)

- 자는 희원希元, 호는 사계沙溪, 시호는 문원文元
- 저서: 『상례비요喪禮備要』, 『가례집람家禮輯覽』, 『사계전서沙溪全書』

김집(金集)

- 자는 사강士剛, 호는 신독재愼獨齋, 시호는 문경文敬
- 저서: 『신독재문집愼獨齋文集』, 『의례문해속疑禮問解續』 등

송준길(宋浚吉)

- 자는 명보明甫, 호는 동춘당同春堂, 시호는 문정文正
- 저서: 『어록해語錄解』, 『동춘당집同春堂集』

송시열(宋時烈)

- 자는 영보英甫, 호는 우암尤菴, 우재尤齋, 봉사奉事, 화양동주華陽洞主, 남간노수南澗老叟, 시호는 문정文正

- 저서: 『주자대전차의朱子大全節疑』, 『송자대전宋子大全』 등

건물

송례사(崇禮祠)

- 목적: 제향인물의 위패 봉안
- 김장생을 중심으로 김집, 송준길, 송시열 배향
- 송례崇禮: 예를 높인다는 의미로 군자가 덕을 닦고 학문을 이루는 방법
-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 건물

송례사 관련 유물

송례사 현판

- 유경사唯敬詞라고 부르기도 함
- 돈암서원 이건 시 송례사 현판 자리에 돈암서원 현판을 달았던 것으로 추정왜 사냐건 웃지요.

전사청(典祀廳)

- 목적: 제향과 관련된 제기 보관
- 정면 7칸, 측면 2.5칸의 팔작지붕 건물

(3) 의례

돈암서원 향사(享祀)

- 춘추향사는 매년 음력 2월과 8월 중정일(中丁日)에 시행
* 중정일: 한 달 중 십간의 정丁이 속하는 날이 세 번 있는데 그 중 두 번째
- 행사 시각은 종래 축시(丑時, 오전 1시~3시)에 지냈으나 현재는 당일 입재 하여 오전 11시경 봉행

돈암서원 향사 준비

① 입재(入齋)

- 향사 이틀 전 원장과 유사는 제물 구입 등 향사 준비
- 제기, 향로와 향합 등 손질 및 점검

② 집사분정(執事分定) 및 축문(祝文) 작성

- 제관 및 참례자들이 서원에 도착하면 도기록(到記錄)에 인적사항 등재
- 제향에 참례하는 단체나 개인들이 봉헌하는 헌성금 기록용 '성금록(誠金錄)'도 마련되어 있음
- 헌관 및 제집사에 대한 분정기 및 축문 작성

③ 설기(設器), 진설(陳設)

- 유사는 서원 청소, 묘정에 자리를 깔아 헌관위와 제집사위, 제생위를 구분하여 마련
- 묘우 당상 동쪽에 분정판을 세우고, 동쪽 계단 아래에 관세위 설치

* 관세위: 헌관 및 제집사들이 자리에 오르기 전 손을 씻는 자리

- 묘우 중문 밖 동편에 준소 설치

* 준소: 헌작례 때 술을 따르는 곳

- 준비된 제수를 소정의 제기에 담아 법식에 맞게 제상 위에 올림

돈암서원 향사 절차

① 변복(變服) · 취위(就位)

- 향사 당일 10시경 모든 제관들은 개좌하여 예복으로 갈아입음
- 11시 집례의 창홀(唱筭)로 행사 시작
- 초헌관이 행례를 앞서 제물의 진설을 점검함

② 전폐례(奠幣禮)

- 신위께 폐백을 올리는 의례
- 초헌관이 신위전에 나아가 향을 피우고 헌폐하는 순서로 진행

③ 초헌례(初獻禮)

- 신위에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례

④ 독축문(讀祝文)

- 축문을 읽는 의례

⑤ 아헌례(亞獻禮)

- 신위에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순서
- 축문 낭독이 없고, 작을 두 번째 작점에 올리는 것만 다를 뿐 절차는 초헌례와 동일

- 배위에 대한 헌작례 역시 초헌례와 동일

⑥ 종헌례(終獻禮)

- 아헌례와 절차 동일
- 헌관이 바뀌고 세 번째 작점에 전작

⑦ 음복례(飮福禮)

- 초헌관이 음복위에 나아가 신이 흠향한 술과 안주를 맛보는 의례

⑧ 철변두(撤籩豆)

- 제향이 끝나고 제물을 거두는 의례
- 철변두가 끝나면 헌관 이하 참례자는 모두 함께 재배하여 신을 보내드리는 송신례를 함

⑨ 망예례(望瘞禮)

- 제향을 마치고 축문과 폐백을 땅에 묻는 의례
- 12시 30분 향사를 마치고 제관들은 제사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공사직일을 한 후 파좌, 음복함

돈암서원 향사의 특징

- 배향된 인물 모두 문묘에 배향
- 향사 의례절차가 관학인 향교석전의 봉행절차와 대체로 같음
- 축문은 주향에게만 독축

- 제관들의 묘우 출입은 동입동출(東入東出)

- 내사연(內賜硯), 옥등잔 진설

* 자세한 사항은 『서원향사』 돈암서원 참고

04. 교류와 유식

- 교류와 유식 공간은 유산을 둘러싼 자연과 통하는 공간으로 서 정자, 누마루 등으로 구성
- 서원과 서원, 유학자와 유학자들의 교류를 통해 지역 여론을 형성
- 유식 공간으로써 경관을 바라보며 시를 짓는 등 보다 자유로운 학습 공간

건물

산양루(山仰樓)

- 목적: 서원 내, 외부 사람들의 교류 및 유식을 위한 곳
- 서원이 이건 되면서 전사청 대청에 상부 현판만 있다가, 2006년 돈암서원 입덕문 앞으로 신축하여 유식 공간 조성
- 전면 5칸, 측면 2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

MEMO

논산 돈암서원의 세계유산 가치

한국 성리학의 실천이론인 예학 논의의 산실

- 1634년 건립된 서원
- 김장생(金長生, 1538~1631)의 제자와 논산지역 사림에 의해 건립
- 성리학의 실천 이론인 예학을 한국적으로 완성한 거점
- 예학 관련 토론, 저술활동의 중심지
- 예제와 결합된 강학 건축물인 응도당의 탁월성
- 이건 상황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진정성과 완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 증명 및 전통 건축기술의 전승

주요특징

- 구성 및 입지

- 강당 건축(응도당)이 규모나 건축형식 면에서 독특함. 19세기 후반 홍수로 인해 현재의 위치로 이건 되었으며, 일부는 20세기 중반까지 이건 됨. 야경(野景) 입지의 전형

- 특징

- 강당 응도당은 김장생이 구상했던 정침(正寢) 이론을 바탕으로 그의 사후 문인들에 의해 건립되었으며, 성리학적 의례를 건축적으로 반영한 사례임
- 예학을 중시하는 김장생의 성리학 연구를 토대로 송시열·송준길·윤선거 등 그의 제자들에 의해 돈암서원을 중심으로 예학 연구가 심화·발전됨

MEMO

MEMO